

## 경제적 세계화, 그 출발과 종착

《회사나, 국가나》에서 《다시 동쪽으로》까지

김기협 | 《중앙일보》 문화전문위원

1997년의 아시아 통화위기는 세계화의 위력을 절감시켰다. 그 후 경제적 세계화의 단서와 원리, 의미를 천착하는 많은 책들이 쏟아져나왔다. 이들 책은 70년대 말 이래 미국경제의 풍토변화가 세계화의 출발점이 됐다고 지적한다.

70년대까지 미국 대기업은 근로자, 거래회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게 혜택을 주려 애쓰는 산타클로스였다. 그러나 일본 및 유럽 산업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직 주주(shareholder)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경제관료로도, 대기업 중역으로도 일한 경력이 있는 미시건대 경영학교수 매리너 휘트먼은 《새 세계 새 규칙》에서 이 변화를 자본주의의 정상적 발전 전향으로 수긍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확장되는 자본의 유동성에서 세계화의 동력을 찾는다.

### 산업패러다임의 전환

미국경제의 비중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급격히 옮겨 왔다. 70년대까지 꾸준한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하는 경제변영 속에 우수한 근로조건을 누렸던 미국 근로자들 중 다수가 지금은 보수가 열악하고 발전전망이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 《새 세계 새 규칙》의 저자들은 사회와 정부가 산업패러다임의 전환을 인식하고 제도와 관습에 적절한 변화를 가할 경우 새로운 변영이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참고할 대목이 많다.

보스턴대 사회학 교수 찰스 더버는 《회사나, 국가나》에서 오늘의 미국을 백년 전 강도귀족

(robber baron)의 시대와 비교한다. 대기업과 자본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등지는 현상을 지적하는 것이다. 기업과 자본의 횡포 앞에 시민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그는 새로운 민중주의(populism)을 제창한다.

어느곳에서나 자본주의는 사회의 관습적 가치에 따라 수정된 형태로 운용된다. 그런데 세계화시대의 자본주의는 일체의 관습적 가치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시장능률을 극대화시키는 이 변화의 산물을 전략연구가 에드워드 러트워크는 《고출력 자본주의》라 부른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곧 세계화인데, 이 변화를 수반하는 사회적 긴장에 대비책이 없는 나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으로 저자는 내다본다.

세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책들도 많다. 세계화에 대한 지성계의 본능적 반성이라고 볼 만한 책으로 대니 로드리크의 《새로운 세계시장 속의 개발도상국들》과 배리 에이첸그린의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향하여》가 보인다.

아시아 금융위기는 브레튼우드 체제를 주축으로 한 기존 국제금융질서의 약점과 한계점을 드러냈다. 자본의 유동성이 브레튼우드 협정 당시와 비교도 되지 않게 높아진 결과다. 버클리의

경제학 교수로 미국과 영국의 경제정책 논의에 폭넓게 관여하는 에이첸그린은 금융위기의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해 세계적 금융질서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화의 초점은 '개방'에 있다. 하버드대 정치경제학 교수 로드리크는 개방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개방에는 이득뿐 아니라 손실도 따른다는 점을 지적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개방의 부작용을 다스릴 정책과 제도를 잘 갖추지 못할 경우, 빈부격차의 확대와 경제자립성의 상실 등 손실이 이득보다 커지기 쉽다고 한다.

### 세계화에 대한 본능적 반성

이보다 한층 비판의 강도가 높은 책은 런던대 경제학부(LSE) 경제사상사 교수 존 그레이의 《거짓된 새벽》이다. 그레이는 “나쁜 자본주의가 좋은 자본주의를 구축하는” 현상을 걱정한다. 그는 자본주의 세계화를 바란다. 그러나 진행중인 세계화는 미국의 힘에 의해 억지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사회는 이득보다 고통을 더 많이 얻을 것으로 그는 본다. 그 결과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광범위한 반감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무리한 세계화가 오히려 자본주의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레이보다 더 전면적이고 극단적인 비판은



데이비드 코튼의 《회사 없는 세상》, 존 필거의 《숨겨진 의제들》, 윌리엄 그라이더의 《우격다짐 세계화》 등에서 볼 수 있다.

사회비평가 코튼은 자본주의를 암에 비교한다. 전파력을 가진 이 병리현상이 멋대로 진행될 경우 오염된 조직 자체가 붕괴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치료가 대중요법만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암과 같다. '유한책임'의 방패 아래 무절제한 이익추구를 하는 회사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코튼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치료법'의 요체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필거는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반미주의자다. 이스라엘을 미국의 테러리즘을 대항하는 기생국가로 여기고 미국정부와 언론, 자본의 범죄음모를 고발하는 필거의 열정은 옛 소련의 선전가들이 무색할 정도다. 《숨겨진 의제들》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의 통치 집단과 국제자본의 내통을 고발한 점이 통렬하다. 극단에 치우친 느낌이 드는 곳도 있지만, 오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한 요긴한 측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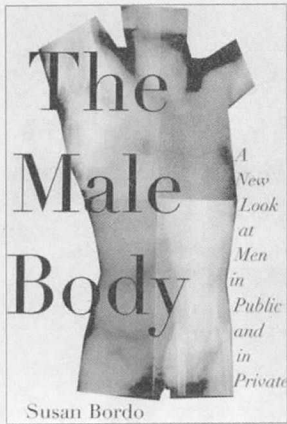
롤링스톤지 논설위원 그라이더는 지금의 세계화가 19세기의 산업혁명보다 더 큰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 엄청난 동력은 어느 국가나 기업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본다. 그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상황의 해석을 근본적으로 왜곡시킨다는 비판도 있지만, 여러 대륙, 여러 나라 각계각층의 입장을 폭넓게 살피면서 '인간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탁월하다

는 점은 비판자들도 인정한다. 세계화의 어두운 면을 살피는 데 제일 뛰어난 책으로 평가된다.

정면으로 위기에 처한 아시아의 장래를 살핀 책으로 켈럼 헨더슨의 《아시아의 몰락》이 있다. 97년 중엽 아시아 국가들을 차례로 덮친 금융위기는 '아시아의 기적'에 도취돼 있던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스탠다드앤푸어스사의 아시아분석관 헨더슨은 아시아의 위기를 94년 멕시코의 위기와 비교해 유용한 관점들을 끌어내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의 회복전망을 밝게 내다본다. 높은 저축률과 교육수준, 낮은 세율, 뛰어난 생산성 등이 근거다. 그러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은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앤드리 프랭크가 '동서경제교섭사'라 부를 새 분야를 개척한 《다시 동쪽으로》가 마침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에 나왔다. 18세기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문명권은 유럽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뛰어난 경제체제를 세워놓았으며, 19세기 이후 유럽이 '일시적' 우위를 차지한 것은 동아시아쪽의 내부문제로 인한 침체에 편승한 것이라는 새 가설이다. 지금의 세계화도 일시적 열세의 한 단면일 뿐, 아시아사회의 방대한 인프라가 위력을 다시 발휘하는 단계가 임박했다는 프랭크의 관점은 위기의 아시아인에게 고무적인 정도가 아니라 선동적인 메시지다. 현 상황의 배경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는 참신한 시각이다. ●

## 남성의 누드에 대한 명상 수잔 보르도의 《남자의 몸》



《남자의 몸》  
페리스트라우스앤지루  
/320면/1999년 5월 출간

현대 남성의 몸은 더없이 단단하고 강한가? 이미지로 존재하는 남성의 몸에 비하면 실제 남성의 몸은 약하기 그지없다.

켄터대학에서 영문학과 여성학 교수로 있는 수잔 보르도는 이전에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서양문명과 육체에 대해 다룬 《견딜 수 없는 무게》를 써 호평받은 바 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남자를 새롭게 바라보기'라는 부제를 가진 《남자의 몸》은 초점을 남성의 몸에 국한시켰다. 강한 몸이라는 만들어진 이미지의 뒤에 감춰진 남성의 몸을 들여다본 이 페미니스트는 오랫동안 확대받아온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 사이의 친화관계를 발견한다.

아버지의 페니스를 본 기억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책은 영화·텔레비전·미술·광고·패션·동성애 문화·대중심리학·사회과학·문학·마약 등 현대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남성의 몸을 고찰하면서 동시에 성폭력·강간·포르노그래피·여성화된 남자·비아그라·O. J. 심슨·보비트 사건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문제들과 페니스 크기에 대한 열등감, 플라스틱 보조물에 대한 관심 등 다양한 소재를 넘나든다.

이처럼 현대문화 속에 감춰진 롤랑 바르트적 의미의 남근신화를 폭로하면서도 솔직한 자신의 경험과 각종 일화를 털어놓아 자칫 고당적으로만 흐를 수 있는 이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다. 그래서 인지 독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 김연수 기자

### 경제 세계화의 문제를 다룬 최근 도서

저자	책제목	출판사
Marina Whitman	New World, New Rules: The Changing Role of the American Corporation (새 세상 새 규칙)	Harvard Business School Publishing
Stephen Herzenberg	John Alic & Howard Wial, New Rules for a New Economy: Employment and Opportunity in Postindustrial America (새 경제 새 규칙)	Cornell U.P.
Charles Derber	Corporation Nation (회사나, 국가나)	St.Martin's Press
Edward Luttwak	Turbo-Capitalism: Winners and Losers in the Global Economy (고출력 자본주의)	Harper-Collins
Barry Eichengreen	Toward a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 Practical Post-Asian Agenda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향해)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Dani Rodrik	The New Global Economy and Developing Countries: Making Openness Work (새로운 세계시장 속의 개발도상국들)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John Gray	False Dawn: The Delusions of Global Capitalism (거짓된 새벽)	Norton
David Corten	The Post-Corporate World: Life After Capitalism (회사 없는 세상)	Berrett-Koehler Publishers
John Pilger	Hidden Agendas (숨겨진 의제들)	New Press
William Greider	One World, Ready or Not: The Manic Logic of Global Capitalism (우격다짐 세계화)	Simon & Schuster
Callum Handerson	Asia Falling: Making Sense of the Asian Currency Crisis and its Aftermath (아시아의 몰락)	McGraw-Hill
Andre Frank	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 (다시 동쪽으로)	Univ. of Calif. Press